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림 금 란¹⁾ · 김 희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고 2006년에는 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61.7%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78.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전홍철, 2009).

현재의 유학은 학문적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의 제고 및 가치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환경에 더 우월하게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중국 유학생은 학업 외에도 숙식문제를 포함한 비싼 생활비,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생활하였던 모국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진결, 2010). 이러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또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학위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조기귀국, 불법 아르바이트나 불법 취업 및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법체류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여(장혁심, 2005) 중국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이 2004년 6.23%에서 2009년 13.23%로 증가한 실정이다(박지호, 2009.6.25).

이처럼 중국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어 능력은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결, 2010). 신체증상은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았고(박영숙, 2007),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낮았고(진결, 2010),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정희, 2006) 긍정적 관련 요소인 사회적 지지(김윤경, 2010), 자기효능(이지선, 2010)과 적응 유연성(서지연, 2009; 최바울, 2006)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잘 사용할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연, 2009).

최근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조혁수, 전경태 2009),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이재모,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등 단일변수에 대한 상관성 연구(서지연, 2009; 장아남, 2009; 장혁심, 2005), 한국 대학생활 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김윤경, 2010; 진결, 2010)로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 위주로,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국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요어 : 학생, 적응, 외로움, 자기효능

* 이 논문은 제1저자 림금란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1) 중국 북화대학교 간호대학

2)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교신저자 E-mail: hkkim@kongju.ac.kr)

투고일: 2011년 8월 26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2일

문화충격과 적응의 이론모형 연구(Zhou, Jindal-Snape, Topping, & Todman, 2008), 미국의 대만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체류기간에 관한 중단적 연구(Ying, 2005),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Lee, Koeske, & Sales, 2004), 영어숙달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만족도 및 사교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Yeh & Inose, 2003) 등 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외국 유학생의 자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국 유학생에서 한국 대학생활 중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소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고려함으로써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편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간호학적 모델을 검토한 결과, Roy의 적응이론(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이은희, 정면숙, 2009)과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평가-대처이론을 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Roy의 적응 이론은 구조적인 여러 자극과 내적이면서 과정적인 통제기전을 다루고 있어 간호대상자의 적응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나 구체적인 개인의 통제 기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반면에 외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통제 기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평가-대처이론은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하여 자극의 의미와 대처방법이 결정되고 그러한 대처방법이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oy의 적응 이론과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평가-대처 이론합성(김인자, 1997)을 개념적 기초로 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한국어능력을 초점자극으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증상과 경제상태,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를 관련자극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초점자극과 관련자극을 하나의 전체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지정도와 평가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1차 평가로, 자기효능과 적응유연성을 2차 평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판단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유학생이 적응하여야 할 대표적인 적응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적합한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

증한다.

-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하고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연구의 개념적 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신체증상, 경제상태, 외로움,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 적응 유연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Roy의 적응이론에서 개인의 통제기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평가-대처 이론의 통제기전에 해당하는 명제들로 대체한 이론합성의 적응예측모형(김인자, 1997)을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 틀로 구성하고, 이 개념 틀에 근거한 가설적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대학생활 적응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 간의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구조모형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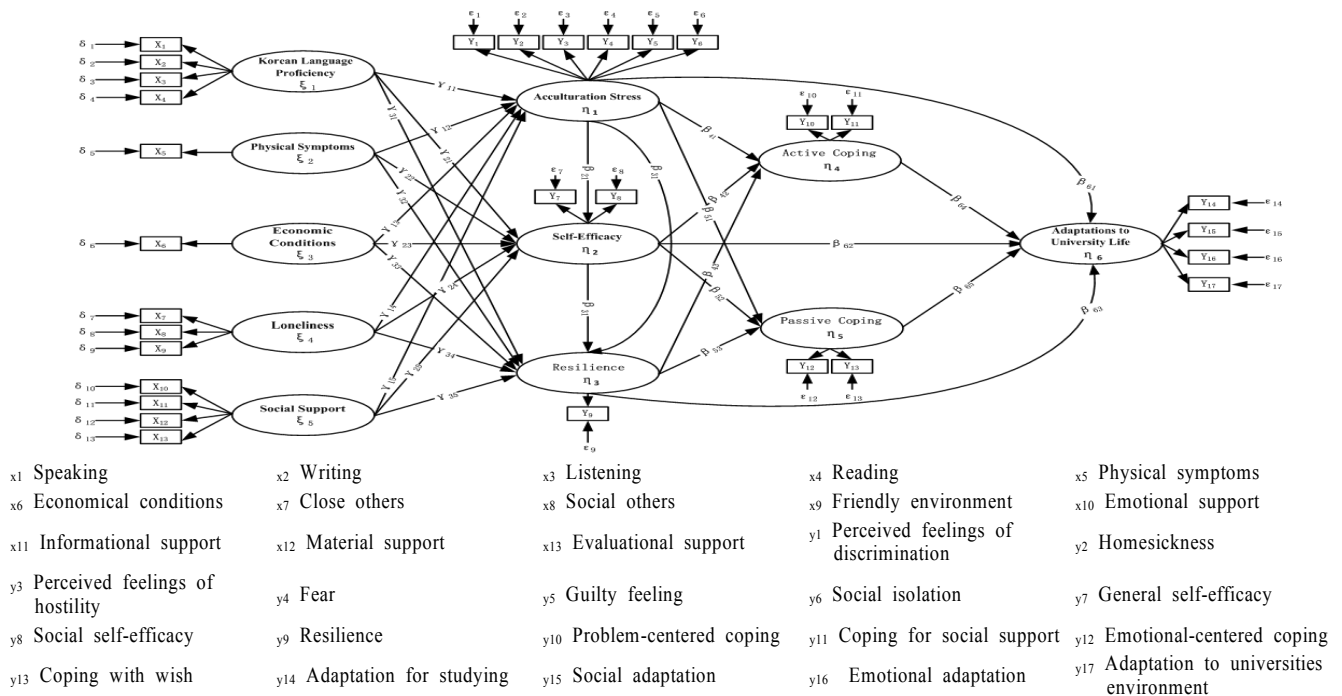
연구 대상

대상자는 C도 G시 G대학에서 입학의 목표료 적어도 1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하는 한국어연수생과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편의 표본 추출된 총 369명의 중국 유학생이었다. 구조모형분석에서 200이상의 표본 크기는 매우 복잡한 경로 모형에서 필수적이며, 표본 크기와 경로모형의 복잡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에서 제시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상적으로는 사례수와 자유모수의 비가 20:1 정도면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10:1 정도의 비를 목표로 하면 무난하다(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2010)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도구

● 한국어 능력

장연(2005)이 개발한 한국어능력 자기평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4문항으로 ‘전혀 못 한다’ 1점에서 ‘대단히 잘 한다’



<Figure 1> The Hypothetical Model for the Study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연(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신체증상

박지현(2008)의 신체증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18문항으로 '전혀 없었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박지현(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3이었다.

● 경제상태

일반적 특성 설문에서 상, 중, 하의 경제수준을 '하' 1점에서 '상' 3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외로움

진결(2010)의 외로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결(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사회적 지지

김윤경(2010)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윤경(2010)

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결(2010)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간호학교수 1인이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제거하여 총 28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결(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자기효능

이지선(2010)의 자기효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간호학교수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제거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선(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8이었다.

● 적응유연성

송양숙(2004)의 적응유연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25문항이며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양숙(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스트레스 대처방식

서지연(2009)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간호학교수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4문항을 제거하였다. 본 도구는 적극적 대처방식 10문항, 소극적 대처방식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 4점까지 두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 또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지연(2009)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가 .81이었고 적극적 대처에 속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대처의 신뢰도는 각각 .64, .49였으며, 소극적 대처에 속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의 신뢰도는 각각 .56,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었고 적극적 대처방식 .72, 소극적 대처방식 .66이었다.

● 대학생활 적응

장아남(2009)의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간호학교수 1인이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제거하였다. 총 6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함을 의미한다. 장아남(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설문지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중국인 유학생 2명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였고 사전에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그리고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380부 설문지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하였다. 탈락률은 2.89%이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5-45분이었다.

윤리적 고려

먼저 대학의 대외협력본부장을 방문하여 허락을 받았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에 사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과 LISREL

8.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으며,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ISREL 8.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가설모형의 부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149명(40.4%), 여자가 220명(59.6%)이었다. 평균 연령은 21.83세(± 2.55)이며 20-24세가 306명(83.0%)로 가장 많았다. 평균 체류기간은 1.36년(± 1.25)이었으며, 1년 미만이 176명(47.7%)를 차지하였고,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258명(69.9%)이었다. 수학과정은 학부가 259명(7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공은 총 30개로 한국어 연수 89명(24.1%), 경영학 79명(21.4%), 게임디자인 39명(10.6%), 관광영어통역 30명(8.1%), 영어영문학 17명(4.6%) 순이었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181명(49.1%)이었다.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수준은 '상'이 8명(2.7%), '중'이 89명(29.7%), '하'가 203명(67.7%)이었다. 유학 동기는 '본인의 삶의 목표 중 하나였다'가 256명(69.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자랑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에'가 76명(20.6%), '타인의 강요'가 34명(9.2%)이었다. 유학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44점(± 1.05)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미응시가 234명(63.4%)이었으며, 응시자 중 불합격 된 경우가 48명(35.6%)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요인의 서술적 통계

외생변수인 대상자의 한국어능력은 5점 만점에 2.91점(± 0.86), 신체증상은 5점 만점에 2.26점(± 0.69), 경제 상태는 3점 만점에 1.35점(± 0.53), 외로움은 5점 만점에 2.48점(± 0.53),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41점(± 0.64)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42점(± 0.55), 자기효능은 5점 만점에 3.36점(± 0.58), 적응유연성은 7점 만점에 5.15점(± 0.85), 적극적 대처방식은 4점 만점에 2.87점(± 0.33), 소극적 대처방식은 4점 만점에 2.62점(± 0.34)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3.32점(± 0.4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구조모형을 분석

<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N=369)

Variables	Categories	n.	Percentage (%)	Mean(SD)
Gender	Male	149	40.4	
	Female	220	59.6	
Age (year)	>20	37	10.0	21.83(2.55)
	20-24	306	83.0	
	≤25	26	7.0	
The length of visit (year)	>1	176	47.7	1.36(1.25)
	1-5<	189	51.2	
	≤5	4	1.1	
Type of residence	Dormitory	258	69.9	
	Rented room	90	24.4	
	Others	21	5.7	
Type of scholarship	Undergraduate	259	70.2	
	Graduate	21	5.7	
	Language study	89	24.1	
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79	21.4	
	Game design	39	10.6	
	Tourism english interpretation	30	8.1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17	4.6	
	Others	115	31.2	
Major field	Humanistics & social sciences	181	49.1	
	Engineering	21	5.7	
	Art & physical exercise	48	13.0	
	Others	119	32.2	
Level of economy*	High	8	2.6	
	Middle	89	29.7	
	Low	203	67.7	
Reason for studying abroad**	Goal of life	256	69.4	
	Curiosity	115	31.2	
	Honor	66	17.9	
	Other's recognition	76	20.6	
	Other's enforcement	34	9.2	
Satisfaction of studying abroad	Regret	59	16.0	3.44(1.05)
	Average	227	61.5	
	Good	83	22.5	
TOPIK experience	No	234	63.4	
	Yes	135	36.6	
TOPIK (degree)	Fail	48	35.6	
	1-2	12	8.9	
	3-4	58	43.0	
	5-6	17	12.5	

* Missing data excluded ** Compound option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하였다.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요인 간의 관계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은 한국어능력($r=.30, p<.001$), 사회적 지지($r=.31, p<.001$), 자기효능($r=.64, p<.001$), 적응유연성($r=.46, p<.001$), 적극적 대처방식($r=.42,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기효능은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과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신체증상($r=-.46, p<.001$), 외로움($r=-.6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r=-.61, p<.001$), 소극적 대처방식($r=-.31,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상관계수 행렬의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 때문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90 이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N=369)

Variables	x1 r(p)	x2 r(p)	x3 r(p)	x4 r(p)	x5 r(p)	y1 r(p)	y2 r(p)	y3 r(p)	y4 r(p)	y5 r(p)	y6 r(p)
x1	1										
x2	-.17(.001)	1									
x3	.10(.074)	-.01(.902)	1								
x4	-.25(<.001)	.27(<.001)	.01(.821)	1							
x5	.25(<.001)	-.14(.006)	-.04(.440)	-.40(<.001)	1						
y1	-.27(<.001)	.32(<.001)	-.02(.761)	.54(<.001)	-.25(<.001)	1					
y2	.29(<.001)	-.33(<.001)	.03(.638)	-.56(<.001)	.28(<.001)	-.53(<.001)	1				
y3	.25(<.001)	-.14(.007)	.06(.303)	-.34(<.001)	.24(<.001)	-.35(<.001)	.43(<.001)	1			
y4	.27(<.001)	-.12(.026)	.06(.273)	-.39(<.001)	.31(<.001)	-.26(<.001)	.40(<.001)	.53(<.001)	1		
y5	-.05(.296)	.17(.001)	.13(.021)	.26(<.001)	-.04(.456)	.34(<.001)	-.34(<.001)	.01(.862)	.14(.008)	1	
y6	.30(<.001)	-.46(<.001)	-.03(.656)	-.61(<.001)	.31(<.001)	-.61(<.001)	.64(<.001)	.46(<.001)	.42(<.001)	-.31(<.001)	1

x1 Korean language proficiency x2 Physical symptoms x3 Economic conditions x4 Loneliness x5 Social support
 y1 Acculturation stress y2 Self-efficacy y3 Resilience x4 Active coping y5 Passive coping
 y6 Adaptations to university life

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조선배, 1996).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자기효능과 외로움으로 상관계수가 .5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검증

● 가설적 모형의 검증

•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전반적 부합지수와 세부적 부합지수로 측정된 결과, 전반적 부합지수로써 카이자승치(χ^2),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부합지수(Nomed Fit Index, NFI),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chi^2=1226.19(df=395, p<.001)$, GFI=.81, AGFI=.77, NFI=.83, NNFI=.86, RMR=0.88로 본 모형은 자료에 대체적으로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부합지수로써 표준잔차와 Q-Plo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가장 작은 표준 잔차가 -2.29, 중위값이 0.06, 가장 큰 값이 2.49로 기준 절대 값이 2.58을 넘는 표준잔차가 없었다. Q-Plot 결과 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까워 모형의 적합도가 지지되었다.

•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이론적 모형에 의해 도출된 29개의 경로 중 17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적 모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이 많을수록($\gamma=0.18, t=3.61$), 외로움이 클수록($\gamma=0.54, t=8.69$) 높았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5.0%이었다. 자기효능은 한국어 능력 점수가 좋을수록($\gamma=0.15, t=3.01$), 신체증상이 적을수록($\gamma=-0.14, t=-3.08$), 외로움이 적을수록($\gamma=-0.42, t=-6.5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beta=-0.30, t=-4.60$)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8.0% 정도였다. 적응유연성은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gamma=0.11, t=2.5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gamma=0.10, t=2.18$), 자기효능 정도가 높을수록($\beta=1.10, t=8.53$) 높았고,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4.0%이었다. 적응유연성이 클수록($\beta=0.79, t=5.30$) 적극적 대처를 하였으며 이 변수에 72.0%가 설명되었고, 자기효능이 낮을수록($\beta=-0.90, t=-4.64$)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변수가 79.0%정도 설명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기효능으로, 자기효능 정도가 높을수록($\beta=1.26, t=3.02$)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82.0%이었다.

● 모형의 수정과 검증결과

• 가설모형의 수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모형의 부합도를 높이고 간명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수추정치가 0.05이하인 경로와 추가지수가 5이상인 경로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를 검토하였다.

가설모형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처리한 결과 가설 모형 중 추가지수가 5이상인 신체증상과 외로움 변인을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추가하였다. 이 두 경로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신체증상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적 변인과 외로움의 심리적 변인이 대학생활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신체증상과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은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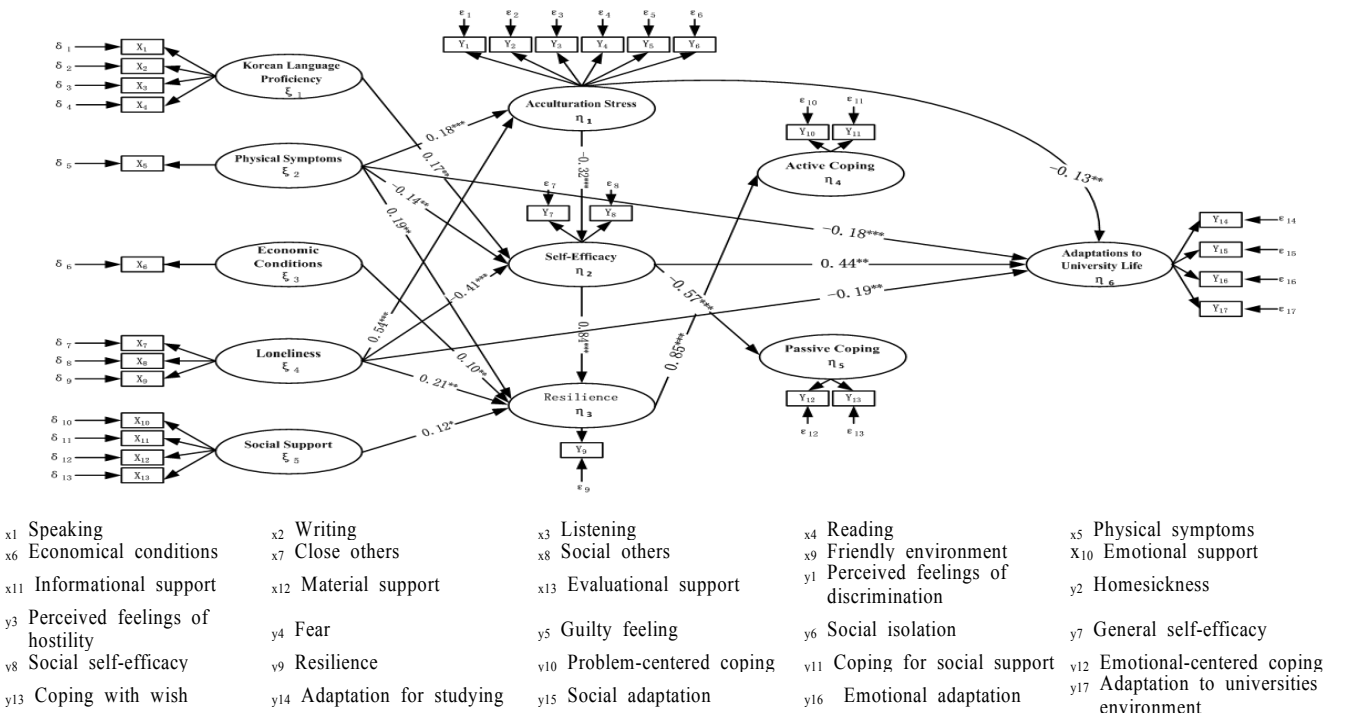
●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수정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지수는 $\chi^2=1146.23(df=393, p<.001)$, GFI=.82, AGFI=.79, NNFI=.88, NFI=.84, NFI=.84, RMR=0.07로 부합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세부적 부합지수를 살펴보면 표준잔차는 가장 작은 값이 -1.71, 중위값이 -0.14, 가장 큰 값이 2.27이었고, 수정모형 Q-Plot의 기울기가 가설모형보다 1에 더 가까워짐으로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은 실제자료와 잘 부합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다. 수정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결과는 가설적 모형에 의해 도출된 12개 경로에서 모형의 수정과정에서 추가시킨 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수정 전후 차이검정과 향상정도를 검토한 결과 χ^2 차이검증에 따라 비교해볼 때 χ^2 차이는 79.96(1226.19-1146.23)이고 자유도는 2로 χ^2 값이 자유도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χ^2 통계량의 확률 값($p<.001$)이 매우 낮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수정모형의 적합도에 있어서 증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 부합지수에 나타난 것처럼 χ^2 값도 감소하였고 GFI, AGFI, NNFI, NFI, RMR 등의 지수 값은 변화 없이 적합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정모형의 모수추정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이 많을수록($\gamma=0.18, t=3.65$), 외로움이 클수록($\gamma=0.54, t=8.71$) 높았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5.0%이었다. 자기효능은 한국어 능력 정도가 높을수록($\gamma=0.17, t=2.85$), 외로움이 적을수록($\gamma=-0.41, t=-5.68$),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beta=-0.32, t=-4.79$)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한 설명 정도는 62.0%정도였다. 적응유연성은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gamma=0.10, t=2.1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gamma=0.12, t=2.41$), 자기효능 정도가 높을수록($\beta=0.84, t=6.51$) 높았고 이 변수들에 의한 설명 정도는 63.0%이었다. 적응유연성이 클수록($\beta=0.85, t=5.96$) 적극적 대처를 하였으며 이 변수가 76.0%를 설명하였고, 자기효능이 낮을수록($\beta=-0.57, t=-3.97$)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가 소극적 대처를 60.0%정도 설명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신체증상($\gamma=-0.18, t=-4.21$), 외로움($\gamma=-0.19, t=-2.98$),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0.13, t=-2.15$)와 자기효능($\beta=0.44, t=2.41$)으로, 신체증상,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효능 정도는 높을수록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5.0%이었다[Figure 2].



<Figure 2>The Modified Model

<Table 3>Total effect of endogenous variable in the correction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t)	Total effect(t)	SMC
Acculturation stres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11(-1.72)		-0.11(-1.72)	.45
	Physical symptoms	0.18(3.65)***		0.18(3.65)***	
	Economic conditions	-0.04(0.79)		-0.04(0.79)	
	Loneliness	0.54(8.71)***		0.54(8.71)***	
	Social support	-0.02(-0.42)		-0.02(-0.42)	
Self-efficac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17(2.85)**	0.03(1.63)	0.20(3.24)***	.62
	Physical symptoms	-0.09(-1.83)	-0.06(-2.93)**	-0.15(-2.94)**	
	Economic conditions	-0.01(-0.33)	0.01(0.78)	0.00(0.06)	
	Loneliness	-0.41(-5.68)***	-0.18(-4.40)***	-0.58(-9.06)***	
	Social support	-0.01(0.20)	0.01(0.42)	0.00(0.06)	
	Acculturation stress	-0.32(-4.79)***		-0.32(-4.79)***	
Resilienc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06(0.95)	0.16(2.94)**	0.22(0.21)**	.63
	Physical symptoms	0.11(1.90)	-0.11(-2.51)*	-0.01(-0.17)	
	Economic conditions	0.10(2.10)*	0.00(0.12)	0.10(1.83)	
	Loneliness	0.09(1.01)	-0.45(-5.55)***	-0.36(-5.23)***	
	Social support	0.12(2.41)*	0.00(0.09)	0.11(2.13)*	
	Acculturation stress	0.06(0.71)	-0.27(-3.83)***	-0.21(-2.56)**	
	Self-efficacy	0.84(6.51)***		0.84(6.51)***	
Active cop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19(3.16)**	0.19(3.16)**	.76
	Physical symptoms		0.00(0.10)	0.00(0.10)	
	Economic conditions		0.08(1.79)	0.08(1.79)	
	Loneliness		-0.30(-4.79)***	-0.30(-4.79)***	
	Social support		0.10(2.10)*	0.10(2.10)*	
	Acculturation stress	0.02(0.23)	-0.18(-2.15)*	-0.16(-2.05)*	
	Self-efficacy	0.00(0.01)	0.71(4.32)***	0.71(5.87)***	
	Resilience	0.85(5.96)***		0.85(5.96)***	
Passive cop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00(0.04)	0.00(0.04)	.60
	Physical symptoms		0.11(2.99)**	0.11(2.99)**	
	Economic conditions		0.05(1.65)	0.05(1.65)	
	Loneliness		0.20(4.19)***	0.20(4.19)***	
	Social support		0.06(2.00)	0.06(2.00)	
	Acculturation stress	0.13(1.75)	0.08(1.21)	0.21(3.48)***	
	Self-efficacy	-0.57(-3.97)***	0.49(3.51)**	-0.08(-0.92)	
	Resilience	0.09(0.36)	0.49(2.50)*	0.58(4.11)***	
Adaptations to university lif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12(3.29)**	0.12(3.29)**	.75
	Physical symptoms	-0.18(-4.21)***	-0.09(-2.85)**	-0.27(-6.09)***	
	Economic conditions		0.01(0.39)	0.01(0.39)	
	Loneliness	-0.19(-2.98)**	-0.37(-6.24)***	-0.56(-10.25)***	
	Social support		0.01(0.35)	0.01(0.35)	
	Acculturation stress	-0.13(-2.15)*	-0.17(-3.62)***	-0.30(-5.25)***	
	Self-efficacy	0.44(2.41)*	0.08(0.62)	0.52(6.00)***	
	Resilience	0.00(0.01)	0.07(0.54)	0.07(0.78)	
	Active coping	0.11(0.54)	-0.02(-0.21)	0.09(0.56)	
	Passive coping	-0.03(-0.22)		-0.03(-0.22)	

* $p < .05$, ** $p < .01$, *** $p < .0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및 경로를 확인한 결과 나타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에서 17개의 경로 가운데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14개이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13개 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신체증상과 외로움은 직접효과만 있었다. 자기효능에 대해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직접효과만 있었고 신체증상은 간접효과만 있었으며 외로움은

직·간접효과가 있었다. 적응유연성에 대해 경제상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은 직접효과만 있었고 한국어 능력, 신체증상,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간접효과만 있었다. 적극적 대처에 대해 적응유연성은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소극적 대처에 대해 자기효능은 직·간접효과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자기효능은 직접효과만 있었고 한국어 능력은 간접효과만 있었으며 신체증상,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직·간접효과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인들의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증대전략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주요한 특성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논의하고, 예측모형의 검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미응시’가 63.4%, ‘응시’가 36.6%로 나타났고 응시자 중에서도 ‘불합격’이 35.6%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한 학생도 불합격이 많았다. 최근 장학금 및 학부 입시제도의 필수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이 요구되므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비제도적 방법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여 한국어 듣기, 쓰기, 읽기와 말하기를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학생이 수준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한국 유학이 가능하도록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습득이 용이하므로 한국 문화체계의 운영, 한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웅변대회, 한국어 백일장과 같은 경진대회, 대학 축제에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생활관에서 중국 유학생에게 방을 배정할 때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 1:1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중국 학생의 한국어능력 도우미로 신청하는 한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부여함과 동시에 우선 선발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 학생 멘토링 시스템 운영, 한국 친구 만들기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일상생활가운데 한국어 사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예측모형에서 대상자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설명력은 한국어 능력, 신체증상,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에 의해 75.0% 설명되었다. 이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결(2010)의 연구결과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48.0%인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모형이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직·간접 영향요인과 총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증대전략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변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 틀로 Roy의 적응 이론(이소우 등, 2009)과 Lazarus와 Folkman(1984)의 이론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Roy의 적응 이론에서 신경, 화학, 내분비계의 생리적 반응을 설명하는 조절기전의 검증이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는 대신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평가-대처 이론의 인지적, 행동적 차원을 활용하면서 이론합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간호학적 측면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이 대학생활 중 경험하는 자극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보다는 자국을 조절하려는 인지적 평가와 행위적 노력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유효하기 때문에(김인자, 1997) 추후 다문화권의 다른 외국 유학생에게도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여 그들의 적응을 파악하고 나타난 결과를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에서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로움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체증상, 자기효능,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외로움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효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에서 미숙한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질감이 한국사회에 통합하여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며(장혜경 등, 2010)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 정도와 자신감을 떨어뜨려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됨으로써 적응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이재명, 2009).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효능을 높여 줌으로써 외로움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 대학생활에 적응한 중국 유학생을 멘토로 하여 자조모임, 한국 친구들과의 홈스테이 등 지지체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유학생 정신건강 심리상담실, 유학생의 장기자랑, 외국인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과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외로움, 스트레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와 외국유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체계도 필요하다.

신체증상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효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

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서지영, 김미예,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고(진결, 2010)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은 높다는 결과(이지선, 2010)와 일치하였다. 유학생 자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건강증진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대학의 보건진료소에서는 다국 언어가 능통한 인력배치, 혹은 자국민의 전문가 배치 등 외국인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방법 마련과 전문기관과의 산학협력교류가 필요하고 일차건강관리차원의 예방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들은 유학 초기에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화적 차이와 이질적인 생활방식 등 의식주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내 신체증상을 많이 보이는 점과 익숙지 않은 언어문제로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등 보건직으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유학생 건강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기효능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선(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은 인지, 동기화, 정서, 환경이나 행위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며(이소우 등, 2009) 행위의 선택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기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데에서 내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지적 요인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에 맞는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학생들 초기부터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 측에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하는 공간마련, 본국의 문화와 개인의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요청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결(2010)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자기효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선(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Yeh과 Inose(2003)의 연구에서는 아시아 유학생이 유럽의 유학생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적 접

근법으로 양국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대학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과 집단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과 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어 능력은 자기효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이재모(2008)와 진결(2010)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이 좋을수록 교내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초점자극으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어능력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는 것으로도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효능이 높고, 그 높은 효능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내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생의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적응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태, 사회적 지지, 적응유연성,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상태의 경우 김정희(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을 단순히 하나의 질문으로 인지적 판단 하에 응답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즉 가정경제, 학교생활비, 등록금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경제 상태는 적응유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자국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김윤경(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미국 Lee 등(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반면에 장혁심(2005)의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아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객관적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서(김윤경, 2010) 본 연구에서도 중국 유학생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요인이라는 이전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상반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면담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도 이를 지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에서 중국 유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국인 선생님을 배치하여 멘토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나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지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한국적 언어문화와 사고체계를 기초로 하여 다차원적 개념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으므로(김련숙, 김지미, 2001)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정확히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제공받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지각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적응유연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정모형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바울(2006)의 적응유연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최근 외국인이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개념으로 적응유연성, 탄력성과 극복력을 도입하여 연구하고 있다(김희경 등, 2010; 장혜경 등, 2010).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적응유연성이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정모형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적응수준이 높고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김윤경(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적극적 대처인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문제 해결중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소극적 대처인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높은 편이었으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된 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70, 적극적 대처방식 .72, 소극적 대처방식 .6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지연(2009)의 연구에서도 소극적 대처방식의 정서중심적 문항의 신뢰도가 .56, 소망적 사고문항이 .67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국유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소극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본 도구를 반복 활용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외로움을 낮추고 신체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점자극인 한국어 능력과 관련자극인 신체증상, 경제상태,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는 인지적 평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과 적응유연성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상태와 사회적 지지를 높이며, 신체증상과 외로움을 낮추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과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간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을 높여 소극적 대처를 낮추고, 적응유연성을 높여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Roy이론과 Lazarus와 Folkman이론의 합성을 개념적 틀로 하여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는 통합적인 모형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설명력은 75.0%이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증상,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이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어 능력임을 확인하였다.

대학 내 중국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보건 간호사가 가장 적합한 전문가이며, 간호학적인 접근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대학의 간호사는 이미 밝혀진 요인들에 전문가이며 신체증상,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을 높이며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적극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대학 내의 보건진료소와 정신건강 상담실을 중심으로 간호사는 건강검진과 질병예방 및 건강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 조교, 같은 국가에서 유학을 와서 이미 적응한 선배, 학생생활관 담당지도원 및 동료 학생들을 활용하여 건강과 상담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측면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학 내 유학생을 위한 건강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및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예측요인과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중국 유학생에게 맞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개방형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양적 조사를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점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다문화 외국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련숙, 김지미 (20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분석. *동남보건대학논문집*, 19(2), 163-172.
- 김윤경 (2010).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전.
- 김인자 (1997).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적응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김정희 (2006).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김희경, 손연정, 이미라, 임경춘, 장혜경, 한수정,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2010). 국내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2), 143-153.
- 박영숙 (2007). *스트레스 경험과 정서지능이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순천.
- 박지현 (200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박지호 (2009.6.25).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중국인 유학생 현황. Web site: <http://blog.daum.net/busut04/13393153>.
- 서지연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주.
- 서지영, 김미예 (2006).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 *아동간호학회지*, 12(4), 470-477.
- 송양숙 (2004). *제가 신체장애인의 회복력 영향요인*.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이은희, 정면숙 (2009). *간호이론의 이해*. 서울: 현문사.
- 이재명 (2009). 정서표현감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1-18.
- 이재모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지선 (2010). *자기효능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장아남 (2009). *제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대학환경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익산.
- 장연 (2005).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숙달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포.
-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혜경, 한수정,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김희경, 임경춘, 이미라, 손연정 (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성인간호학회지*, 22(6), 653-662.
- 전홍철 (2009). 한국유학 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어문학지*, 30, 385-406.
- 조선배 (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진걸 (2010). *중국 유학생의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바울 (2006).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Lazarus, R. A.,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 coping*. NewYork: Springer.
- Lee, J. S., Koeske, G. F., &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399 - 414.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 - 28.
- Ying, Y. W.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9 - 71.
- Zhou, Y. F., Jindal-Snape, D., Topping, K., & Todman, J. (2008). Theoretical models of culture shock and adaptation

A Prediction Model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Lin Qin Lan¹⁾ · Kim, Hee Kyung²⁾

1) Dr. Lecturer, College of Nursing, Beihua University, China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Purpose: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 combination of Roy's adaptation theory and Lazarus & Folkman's theory of stress - appraise co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effect factors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fter this, a mod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as constructed. **Method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survey 369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Korea, which was analyzed by using PASW Statistics 18.0 and LISREL 8.7. **Results:** This theoretical model explaine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t 75.0% in Korea. Physical symptoms, loneliness,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directly affected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directly affecte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through self-efficacy.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basis for the future health care of university- centered health centers. For improving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education and nursing measures for reducing physical symptoms, loneliness and acculturation stress, and improv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elf-efficacy are proposed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Key words : Students, Adaptation, Loneliness, Self-Effica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 Kyung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182, Singwan-dong, Gongju-si, Chungnam 314-701, Korea

Tel: 82-41-850-0304 Fax: 82-41-850-0335 E-mail: hkkim@kongju.ac.kr